

농촌고령자 공동급식시설의 현황 및 이용 만족도 연구

- 2014~15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A Research on Using Satisfaction and Situation Survey of Common Meal Facilities for Seniors in Rural Areas

- Focusing on the Pilot Project of Common Facilities for Rural Seniors from 2014 to 2015-

김 승 근*

Kim, Seung-Geun

Abstract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user satisfaction with village bathhouses, selected from a two-year pilot project of common facilities for senior in rural areas from 2014 to 2015.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questionnaire to evaluate user satisfaction, and 135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18 common meal facilities. User satisfaction was evaluated in five categories with a five-point scale: location and spatial composition; emotions and intimacy; safety; nutrition;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en overall user satisfaction was evaluated on a five-point scale, the average score stood at 4.24 out of five points and 90.03 out of 100 poi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users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common meal facilities. Among five categories, scores except safety stood at four points or higher, indicating higher user satisfaction. Second, communal meal in rural areas have been carried out already but the environment for communal meal like cooking equipment, wastewater disposal, and space have been poor. However, the environment is improved through this pilot project, which has a positive effect to user satisfaction. Third, space planning for barrier-free or sanitary in storage of food containers are not adequate, which is necessary to detailed planning and concrete guideline.

주 요 어 : 농촌지역, 고령자시설, 시범사업, 공동급식시설

Keywords : Rural area, Common facilities for rural seniors, Pilot project, Common meal facilities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농촌지역 고령자 및 노인독거가구의 증가로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에 취약한 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의 단절·질병 등으로 우울증, 자살, 고독사가 증가되고 있다. 농촌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 기준, 183만 명으로 농촌지역 전체 인구의 20.9%에 이르며, 65세 이상 독거가구는 44만명으로 13.3%에 달하고 있으며, 도시에 비해 농촌노인의 자살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은 주택의 노후화, 수선 및 거주비용의 부담으로 겨울철 난방을 실시하지 않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불규칙하고 불균형적인 식사는 심각한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농촌의 과소화마을이나 한계마을로 변화하는데 영향을 미쳐, 결국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 내 고령자가 공동으로 생활·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고령자의 고독감 완화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한계마을이나 과소화마을로의 변화를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령화, 빈곤, 고독사 문제와 더불어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리한 지역인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촌노인들의 기본적인 주거환경과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보건·의료·복지 등의 혜택을 확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4년 1월 농촌 고령화에 대비하여 대안적 복지모델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4년~15년의 2년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로서,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을 전국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다<Table 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고령 농어업인의 영양개선),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과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로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의 지원을 통해 농촌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의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4년~15년 추진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공동급식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농촌지역의 공동급식시설에 대한 발

* 정회원, 강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Gangdong University, kimlaud@gangdong.ac.kr)

전방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54개의 공동급식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시설물의 현황, 무장애디자인의 적용현황,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공동급식시설의 시설물 구축의 측면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운영 및 관리와 같은 측면은 건축물이 조성된 이후의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건축적 측면으로 제한하였다.

Table 1. Distribution of common facilities for seniors in rural areas selected to pilot project in 2014 and 2015

시도	합계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14	'15	계	'14	'15	'14	'15	'14	'15
세종	1	-	1	-	-	-	-	1	-
경기	2	2	4	-	1	1	1	1	-
강원	3	2	5	3	2	-	-	-	-
충북	2	8	10	-	4	2	4	-	-
충남	4	5	9	2	3	1	2	1	-
전북	14	15	29	7	6	7	8	-	1
전남	9	8	17	5	4	2	3	2	1
경북	18	18	36	6	7	8	6	4	5
경남	18	11	29	10	6	4	2	4	3
제주	1	4	5	-	-	1	2	-	2
계	72	73	145	33	33	26	28	13	12

1.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14~'15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에서 공동급식시설로 선정된 54개소를 1차 연구대상으로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현황과 고령자시설로서 요구되는 무장애시설의 적용현황을 조사하였다.

공동급식시설의 이용만족도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현장조사 시 마을리더를 통하여 배포하고 수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¹⁾ 설문지는 총 142부가 회수되었으며, 미기입 및 응답부실 등을 제외하여 총 135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18개 시설로 나타났으며, 이는 18개의 마을에 해당한다.

만족도 조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준공 이후 운영 중인 시설을 선정하였다. 준공은 완료하였으나 운영기간이 부족한 시설(최소 1개월 미만)은 제외하였다.²⁾ 본 시범사

- 1) 마을리더는 공동급식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마을의 책임자로서 마을이장, 노인회장, 운영위원장이 해당한다. 설문지는 마을리더가 설문 응답자에게 직접 배포하였으며, 회수는 연구자가 직접수거하거나 우편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의 배포는 공동급식이 이루어질 때, 마을리더를 통하여 안내하여 응답자에게 배포하였다.
- 2) 일반적으로 주민 만족도 평가 및 거주 후 평가(POE)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이용(거주)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점검·평가하는 측면에서 최소 1년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본 조사는 '14년~'15년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선정에서 시작하여 준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영시기를 고려한다면 '15년에 선정된 시설의 경우는 1년 미만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적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시범사업의 운영성과 점검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1개월 이상 운영실적을 보유한 시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업에 있어서 공동급식시설사업은 공동생활홈과 작은목욕탕 사업과 달리 마을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었던 마을이 대부분으로 시설적 측면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기간의 기준을 최소 1개월로 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시설 중 설문 응답이 가능한 시설은 총 45개소이며, 설문지가 회수된 18개소는 이 45개소 중 40%에 해당하고 있다<Table 5 참조>.

조사는 2016년 3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회수는 2016년 8월 30일까지로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Study facilities and method

분석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
54개 시설	· 시설물 현황 및 개요 · 무장애디자인 현황	현장조사
135부 설문지	· 이용자 만족도조사 · 18개 시설(마을)	설문조사

급식시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위한 조사내용은 <Table 3>과 같이 이용자 정보, 시설에 대한 만족도, 급식시설의 이용 전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은 '14년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사의 연구용역³⁾에서 조사한 <시설, 입지 및 공간, 내부공간구성>, <정서>, <영양>, <안전>, <유지관리>의 5가지 세부항목과 <시설이용, 전반적인 시설 이용만족도>의 문항을 토대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용만족도의 세부항목으로 <입지 및 공간>, <정서 및 친밀도>, <안전>, <영양>, <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공동급식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 5점 척도와 100점을 기준으로 각각 1문항씩 질문하여 평가하였다.⁴⁾

Table 3. Questionnaire composition

내용		문항 수	질문유형
이용자 정보	일반적 정보	6	선택형
	이용특성	6	선택형
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	입지 및 공간구성	8	5점척도
	정서 및 친밀도	8	
	시설물 안전	6	
	영양	3	
	유지관리 및 운영	12	
	전반적인 이용만족도	1	
급식시설 이용 전후에 대한 내용		1	100점 기준
계		6	선택형, 기술형
계		57	

3)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건축계획기준 개발, 2014.

4) 본 시범사업은 농촌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100점 중 몇 점인가?"의 질문이 응답자에게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가능성이 있으므로, 5점척도의 보완으로서 100점을 기준으로 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졌다.

설문지가 회수된 18개 공동급식시설의 지역별 분포는 <Table 4>와 같다. 설문지는 하나의 마을에서만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당 10부 내외로 한정하였다.

Table 4. Collection areas and the number of questionnaire

지역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설문 회수 시설 수	2	3	2	4	1	2	3	1	18
설문 응답자	21	16	24	21	11	24	8	10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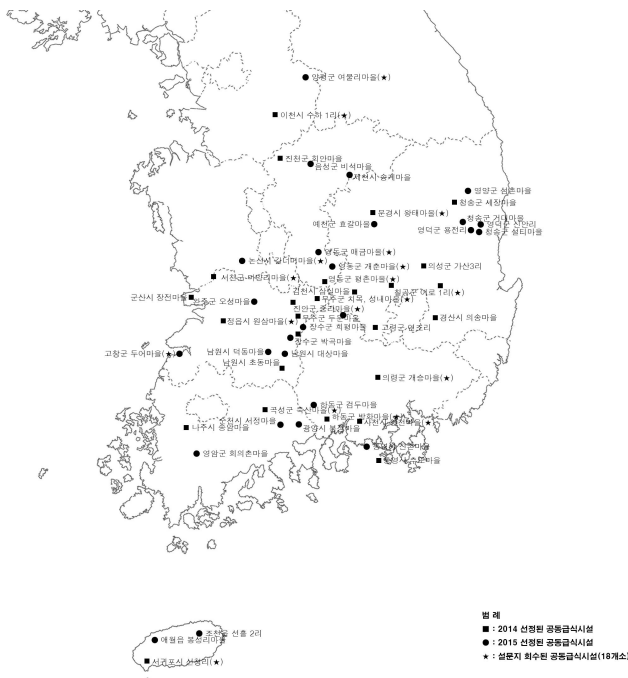


Fig. 1. Distribution of community meal facilities in area

2. 공동급식시설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농촌고령자 식사 및 영양에 대한 선행연구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자는 기본적인 삶의 질에 취약한 계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고령자가 접하고 있는 문제는 주거환경, 위생 및 영양, 건강, 정서적인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며,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한가지의 측면에서만 해결될 수 없는 연관성을 맺고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촌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문제해결이 식사나 영양적인 측면에서만 취급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농촌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박순미의 연구⁵⁾에서 보면 경제상태와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

5) 박순미,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특성비교, 노인복지연구, 47, 2010. pp.137-160.

결과는 정재훈의 연구⁶⁾에서도 농촌노인의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1994년에는 경제상태>자녀관계>주거환경 순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2004년에는 경제상태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으며, 2011년에는 건강상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노인의 건강상태가 직접적으로 식사나 영양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촌지역의 노인들이 불규칙하고 불균형적인 식사가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 이것이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농촌고령자의 영양적 측면이 아니라 공동급식시설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보고서⁷⁾에서는 공동급식시설의 개념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마을 또는 일정의 공동체 또는 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보건진료소 등의 마을 공공시설 등에서 시설 내 또는 별도로 조리 및 식사 제공을 위한 설비를 갖춘 시설로 정의하였다 <Table 5>.

Table 5. Concept of community meal facility

구분	내용
개 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마을 또는 일정의 공동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로서 조리 및 식사제공을 위한 설비를 갖춘 시설
건축법상의 용도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사 관련용어	경로식당(경남 의령), 공동급식소(전북 완주), 마을 공동식당 등

김진환 외의 연구⁸⁾에서는 공공급식시설의 이용 후 식사 횟수에 있어서의 만족도, 식사의 질과 관련된 반찬의 가지수에서의 만족도, 식사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밝혀졌다. 이 연구는 '14년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운영기간이 2~3개월 이내로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급식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에 연구는 농촌지역에서 공동급식시설의 이용으로 전체적으로 식사 및 영양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지만,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고, '14년~15년 전체 사업기간을 대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시범사업에 있어서 공동급식시설의 세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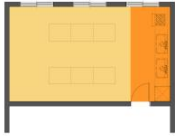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은 농촌지역의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적 노인복지 모델의 창출에 초점

- 6) 정재훈, 농촌노인의 주거환경과 생활만족도 변화추이,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7(4). 2015. pp.1-8.
- 7) 농림축산식품부,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 2013. p.18
- 8) 김진환·박중신·송서호,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주민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7(4). 2015. pp.9-16

이 있으나, 공동생활홈을 제외한 공동급식시설과 작은목욕탕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농촌주민 전체가 복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체감형 복지 모델의 창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본 시범사업에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공동급식시설은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내 또는 별도로 구축된 공간으로 조리 및 식사 제공을 위한 설비를 갖춘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Table 6>과 같이 유형이 제시하고 있다.⁹⁾

Table 6. Pros and cons by types of community meal facilities

유형	좌식형	테이블형
사례 도면		
비고	■ 식당 ■ 주방 ■ 화장실	
관련 이미지		
설명	좌식의 밥상에서 식사 행위를 영위하는 유형	입식의 테이블에서 식사 행위를 영위하는 유형
장점	① 기존의 전래식 식사습관에 대응 ② 전래의 바닥난방에 대응 가능 ③ 다양한 공간으로의 활용이 가능	① 관절 등 노환을 배려한 식사가 가능 ② 취사노동의 경감효과 있음 ③ 방문객 등의 대응에 편리함
단점	① 관절 등 노환에 대한 배려 미비 ② 취사노동에 경감효과 미비 ③ 방문객 등의 대응에 어려움	① 다른 용도로의 공간활용에 어려움 ② 전래의 식사습관에 대응 불리 ③ 가구류 등 시설비가 다소 소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공동급식시설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물의 개념 및 제한조건으로는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내 또는 별도로 조리 및 식사 제공을 위한 설비를 갖춘 시설, 식재료 조달, 조리, 식사제공 등은 마을공동체가 운영, 시설의 소유 및 이용은 마을공동체이며, 음식점 등 영업용 식당으로 사용 불가라는 3가지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② 시설물 구축(하드웨어)의 측면에서는 마을회관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리모델링 또는 증축을 권장하고, 예상 급식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시설 규모, 설비의 종류·수량 등을 결정하며, 조리구역과 식사구역을 구분하고 식자재 보관시설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농번기와 농한기 급식수요가 다를 것에 대비하여 계획 시 칸막이 벽 등과 같은 유동적 공간의 확보가 요구된다. 시설이용자를 위해서는 무장애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③ 운영(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급식시설의 이용방안 및 운영 규칙을 수립하고, 식자재 조달, 조리, 식사제공 등은 원칙적으로 마을주민 또는 단체가 부담하며 가사도우미,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공동급식시설은 식사와 관련되어 위생성이 요구되므로 다음의 4가지 사항을 별도의 고려사항¹⁰⁾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다.

① 공동급식시설의 조리구역과 식사구역을 구분하되 조리구역과 식사구역을 동일 공간 내에 설치하며, 가급적 바닥난방(바닥 패널히팅)의 좌식 식사공간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② 환기 및 습도조절에 용이하도록 급식, 조리, 식자재 창고 등의 배치에 주의(일사가 긴 서쪽은 음식물이 부패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피하도록 함)한다.

③ 조리대 규모 및 가구 배치는 공간의 전체적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식자재 보관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고, 식자재 보관을 위한 냉장고 및 창고시설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계획되지 않도록 주의, 특히 환기 및 통풍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특히, 식자재 창고는 환기 및 습도조절을 위하여 출입문과 별도로 반드시 외부와 면하는 창문을 설치하도록 한다.

3. 공동급식시설의 시설물 현황

3.1 공동급식시설 현황

① 운영현황

본 시범사업을 신청할 당시 마을에서 운영하였던 공동급식의 실태를 살펴보면, 54개 마을 중 50개 마을에서는 이미 공동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개 마을은 본 시범사업을 계기로 마을 공동급식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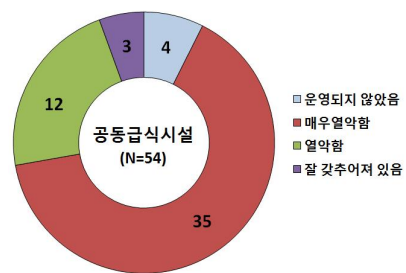


Fig. 2. Management status before this pilot project

본 시범사업 이전의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방이나 식당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설비나 공간이 갖추어지지 않아 소수의 제한적인 인원이 단지 모여 함께 식사를 하거나 마을 전체가 이용할 경우에도 마을회관의 마당에서 가마솥에서 불을 때어서 공동급식을 하는 등의 매우 열악한 환경인 경우가 64.8%로 조사되었으며, 급식

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유형별 가이드라인, 2015. p.7.

1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유형별 가이드라인, 2015. p.56.

시설의 공간은 마련되어 있으나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22.2%로 조사되어 약 87% 정도가 급식시설로서의 환경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마을에 급식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던 마을도 선정된 사례가 나타났는데, 정부지원 재정사업에 대한 마을의 과도한 욕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례 중에는 시범사업을 통하여 마을의 유희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급식시설을 갖추었지만, 현재는 과거의 급식시설을 이용하면서 리모델링한 시설을 방치하여 운영하지 않거나 마을행사에서 형식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 시범사업을 통해서 급식시설이 열악하여 소규모의 제한된 인원이 이용하였던 경우에는 마을 전체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열악한 급식시설의 환경이 개선되어 마을 공동급식시설이 활성화된 계기가 된 것이라 판단된다.

당초 시범사업에 선정된 공동급식시설의 수는 총 54개 소였으나, 2015년 7월 30일 기준으로 운영실태를 살펴본 결과, 2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공사 중이나 예정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총 49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7>.

Table 7. Management status of common meal facilities (2016.7.31.)

미 운영	'14년				'15년				총 시설	
	공사 중 / 예정	운영 중		계	미 운영	공사 중 / 예정	운영 중			계
		한달 미만	한달 이상				한달 미만	한달 이상		
1	1	1	23	26	1	2	3	22	28	54

② 시설물 현황

공동급식시설의 시설현황¹¹⁾은 <Table 8>과 같다.

급식시설의 층수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층에 위치하는 경우도 2사례 존재하고 있다.

공동급식시설의 조성 현황을 보면, 리모델링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증축으로 나타나, 증축과 리모델링이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 본 시범사업에서는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폐교, 창고, 빈집 등과 같이 농촌의 유희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Table 8. General architectural information of facilities

구분	N	%	구분	N	%		
						구분	N
층 수	1층	51	96.2	면적	50㎡ 이하	14	26.4
	2층	2	3.8		50~100㎡	23	43.4
조성 배경	신축	9	17.0		100~150㎡	10	18.9
	증축	10	18.9		150~200㎡	4	7.5
	리모델링	33	62.3		200㎡ 이상	2	3.8
	증축·리모델링	1	1.9	계	53	100.0	

11) 미운영, 공사 중 등으로 조사일 기준에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도면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아직 도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시설 수는 53개가 해당된다.

그러나 신축의 경우도 약 17%인 9사례가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마을에서 다른 고령자 공동시설이 함께 선정된 경우로 나타났다. 본 시범사업은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의 3개 유형의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3개 유형의 시설이 동시에 선정된 경우가 3개 마을, 그리고 2개의 시설이 동시에 선정된 마을이 9개 마을로서 이 경우는 공동생활홈과 공동급식시설로서 모두 신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축이라 할지라도 공동급식시설 자체만을 신축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리모델링이나 증축의 경우, 가장 많이 활용된 시설은 마을회관이 거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경로당, 공동작업장, 공동취사장, 마을창고, 마을 구관장과 같은 마을공동시설로 나타났으며, 보건소, 장수문화센터, 복지회관과 같은 공동시설도 나타났다.

본 시범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사업을 공모할 시에는 마을 유희시설의 재활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선정 자격요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신청자격이나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본 시범사업이 기본적으로 농촌의 유희시설을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사업 선정에 있어서 신축인 경우와 재활용의 경우에 어떻게 차이를 두고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후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있어서는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희시설에 대한 활용측면에서 이러한 측면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면적을 보면, 「100~150㎡」이 가장 많은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50㎡ 이하」와 「100~15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50㎡가 89%로 나타났다.

③ 공간계획 및 식사방식

식당과 주방의 배치를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구한 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형이 많았으나, 그 이상의 면적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9>.

시범사업에 선정된 총 54개의 공동급식시설 중, 2015년 7월 30일 기준,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5개 시설을 제외한 49개의 공동급식시설에 있어서 식사방식을 살펴본 결과<Table 10>, 좌식형이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좌식형과 테이블형을 절충한 방식도 나타났다.

식당은 좌식형과 테이블형으로 구분되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의 경우는 모두 입식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다. 다만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 외부공간의 수돗가 주변에서 식재료를 손질하는 서비스공간에서는 쪼그려 앉아 작업하거나 아주 낮은 의자를 사용하고 있다.

식당과 주방의 배치에 있어서 식사방식을 살펴보면, 좌식형인 경우에는 일체형이 많이 나타난 반면 테이블형식의 경우에는 분리형이 많이 나타났다.

고령자 대상의 사업이므로 테이블형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농림축산부의 가이드라인에서는 '가급적 바닥난방의 좌식 식사공간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도 하고, 기존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면서 과거의 좌식형을 유지하거나, 신축이라 할지라도 마을

공동급식시설은 식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마을의 경로당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테이블형 보다는 좌식형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Table 9. Space planning by s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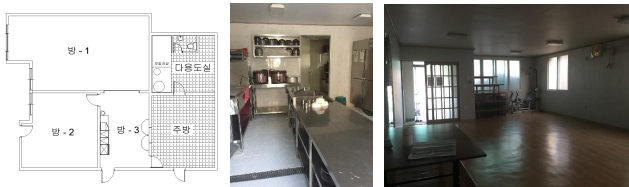
면적	공간계획	식당과 주방 배치		합계
		일체형	분리형	
면적	50m ² 이하	5	9	14
	50~100m ²	12	11	23
	100~150m ²	5	5	10
	150~200m ²	2	2	4
	200m ² 이상	0	2	2
합계		24	29	53

Table 10. Eating type by dinning and kitchen layout

공간계획	식당과 주방 배치	식사방식			합계
		좌식형	테이블형	절충	
공간계획	일체형	21	2	1	24
	분리형	12	9	4	25
합계		33	11	5	49

Table 11. Eating type by meal setting way

상차림 방식	식사방식	식사방식			합계
		좌식형	테이블형	절충	
상차림 방식	한식상차림	21	7	4	32
	뷔페식 차림	7	2	1	10
	혼합	4	2	0	6
합계		32	11	5	48



A separation case of kitchen and dining (a)



A combined case of table type and sedentary type being separated kitchen and dining (b)



A combined case table type and sedentary type being separated kitchen and dining (c)

Fig. 3. Space layout between kitchen and dinning by eating type

상차림 방식에는 한식상차림이 많이 나타났으나, 이에 따른 식사방식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1>. 마을마다 상차림방식을 하나로 고정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인원, 농번기 혹은 농한기에 따른 식사준비시간, 마을행사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급식시설에 있어서 주방과 식당의 배치에 대한 공간계획이나 좌식형 혹은 테이블형의 선택은 기존건축물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이 좌식형의 경로당이라면 기본적으로 좌식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Fig. 3>의 (a)의 경우는 식당과 주방이 분리된 형태로서 식당은 좌식형을 취하고 있다. <Fig. 3>의 (b)와 (c)는 테이블형과 좌식형이 절충된 형태인데, (b)의 경우는 소규모가 식사할 시 테이블형을 이용하고, 반면 (c)의 경우는 소규모 인원의 식사를 위한 공간을 좌식형으로 계획되었다.

3.2 공동급식시설의 무장애시설 현황

본 시범사업은 농촌고령자 공동지원 시설로서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디자인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무장애디자인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공동급식시설의 입구 경사로, 경사로 안전손잡이, 현관 입구의 미끄럼방지 재료의 사용, 화장실 변기의 안전손잡이 설치 유무를 파악하였다<Table 12>.

4개 항목 중 현관입구의 미끄럼방지 재료의 사용은 거의 90%로서 나타났으며, 경사로는 50%의 시설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사로와 변기의 안전손잡이는 50% 이상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Status applied barrier free design

내용		N	%
입구 경사로 설치유무	설치되어 있지 않음	20	37.0
	설치되어 있음	27	50.0
	대지와 건축물 레벨이 동일함	7	13.0
경사로의 안전 손잡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29	53.7
	설치되어 있음	18	33.3
	대지와 건축물 레벨이 동일하여 설치할 필요없음	7	13.0
현관입구의 Non-Slip 재료 사용	미끄러운 재료가 사용됨	6	11.1
	미끄럽지 않은 재료가 사용됨	48	88.9
변기의 안전손잡이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39	72.2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5	9.3
	공동급식시설 내에 화장실이 없음	10	18.5
합계		54	100.0

그러나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 사례가 나타났다. <Fig. 4>와 <Fig. 5>는 리모델링으로 이루어진 시설인데, <Fig. 4>의 경우는 비록 시설물의 입구에 경사로는 설치되었으나, 경사로의 각도가 높아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이다. <Fig. 5>의 경우는 경사로 자체는 이용하기에 편리

하게 계획되어 있으나, 현관입구의 문턱이 높아 경사로의 흐름이 시설물의 내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록 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의 취지에서 볼 때 부적합하게 되어 있어, 경사로 설치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Fig. 4. Precipitous ramp



Fig. 5. Flow of ramp blocked by threshold of entrance

본 시범사업에 선정된 54개소의 공동급식시설의 용도를 조사해 보면, 49개소(90.7%)가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이 2개소(3.7%), 그 외 복지시설, 창고, 작업장 등의 기타가 3개소(5.6%)¹²⁾로 나타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근린생활시설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급식시설의 경우는 건축물 내부의 리모델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공간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기본적인 무장애시설이라 할 수 있는 정도도 아주 초보적인 수준으로 계획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공동급식시설의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개소 당 5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으로 일괄 지급되면서, 건축물의 조성방법, 규모, 재료 등에 대한 차등이 없었으므로 사업비가 기준이 되어 추진되는 상황이 되어 무장애디자인의 적용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도 판단된다. 이는 또한 여전히 농촌지역에서는 배리어프리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도 초보적인 수준의 무장애디자인이 적용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고령자가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있어서 고령자시설만이라도 배리어프리 설치에 대한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동이 잦은 현관이나 고령자의 신체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화장실 등에서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12)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4. 공동급식시설의 이용만족도

4.1 이용자 개요 및 공동급식시설의 운영

① 이용자 개요

공동급식시설 이용자 135명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32.6%, 여성이 67.4%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연령은 80대가 가장 높은 3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70대, 6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가장 많은 이용자는 92세이며, 평균연령은 73.9세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41~60년>이 가장 많으며, 거주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1년, 가장 긴 경우는 86년으로 평균 거주기간은 46.7년으로 나타났다. 마을 거주 이유에 대한 응답을 보면, 여성거주자가 67%를 차지하기 때문에 <시집왔음>이 4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 마을에서 <태어났음> 29.3%, <이사왔음> 22.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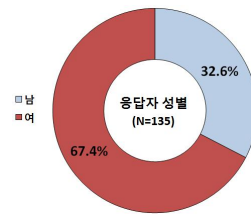


Fig. 6. Gender of us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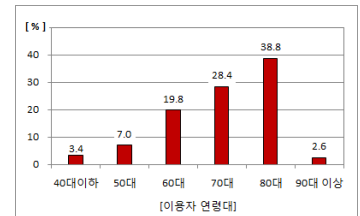


Fig. 7. Ages of us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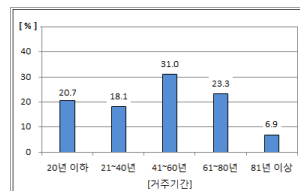


Fig. 8. Period of res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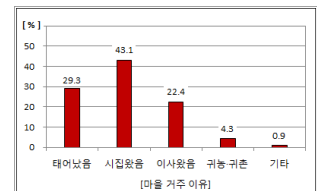


Fig. 9. Background of residence

공동급식시설의 이용 전 함께 식사 하였던 사람에 대한 응답을 보면, 가족이 4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혼자라고 응답한 경우도 41.4%로 나타나 공동급식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공동급식시설에 올 때 누구와 함께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혼자 오는 경우가 5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편이나 부인과 함께 온다는 경우는 31.9%, 그 외 마을의 다른 분과 함께 급식시설에 가는 경우는 9.5%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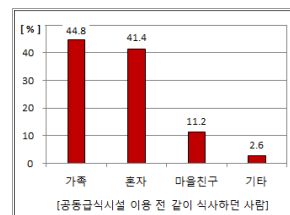


Fig. 10. Person eating together before communal m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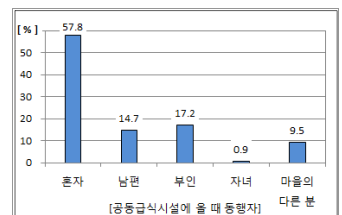


Fig. 11. Companion who going to common meal facilities

급식시설까지의 거리는 소요시간은 0.2분에서 30분까지로 조사되었으며, 평균은 약 6.4분으로 이용자의 90%정도가 10분 거리 정도에서 생활하고 있다. 급식시설까지의 이동수단은 도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이 4.5%, 그 외 전동차, 자전거 등도 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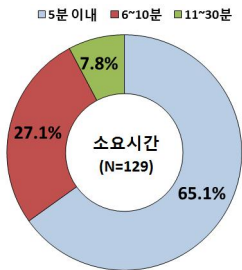


Fig. 12. Transportation to common meal fac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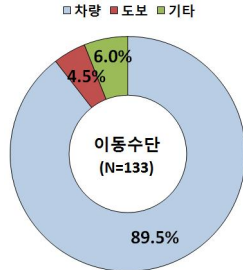


Fig. 13. The time required to common meal facilities

② 공동급식시설의 운영

<함께 식사하는 인원 수>에 대한 평가를 보면, 4.14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이는 당초 공간의 규모를 산정할 때부터 급식시설 이용자의 수를 일정정도 산정하였기도 하지만, 공간이 좁더라도 함께 식사를 하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공간의 규모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함께 식사하는 인원 수>를 보면, <21~25명> 단위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16~20명>, <20명 이상>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 약 80%정도가 15명 이상이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진환 외의 연구¹³⁾에서도 1회당 22명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급식시설의 식사방식을 보면, 앉아서 식사하는 좌식형이 12개 마을, 테이블형은 3개 마을, 이 2가지 방식이 혼합된 경우가 2개 마을에서 나타났다. 기타로서 <쟁반>이라고 기술한 경우가 1개 마을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식사 방식에서는 좌식에 해당하지만, 상을 차리고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이다. 2014년 12월부터 공동급식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쟁반>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 급식시설에 요구되는 비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사례라고 보아진다.

식사방법은 이용자의 약 64% 정도가 상차림 방식을 이용하고, 뷔페식은 약 36%로 나타났다. 마을별로는 11개 마을이 한식 상차림방식이고 7개 마을이 뷔페식이라고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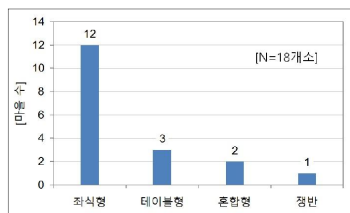


Fig. 14. Eating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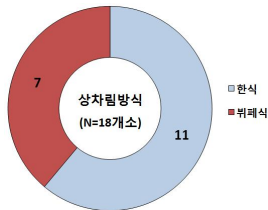


Fig. 15. Meal setting way

답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이 시기와 상황에 따라 한식상차림과 뷔페식을 혼용하고 있다.

③ 공동급식시설의 이용 전후의 비교

공동급식시설 이용 전후 식사횟수의 변화를 보면, 1일 평균 식사횟수는 2.7회로서 이용 전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식사라는 행위는 이미 형성된 습관이므로 마을내의 공동급식시설의 유무 자체가 식사의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 판단된다.

반찬의 가지 수를 보면, 급식시설 이용 전 1회당 3.4가지에서 급식시설 이용 후에는 1회당 5.4가지로 2.0가지가 증가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식시설 이용 전에는 반찬 수 <3~4가지>가 가장 많은 51%정도를 차지한 반면, 급식시설 이용 후에는 <5~6가지>의 반찬 수가 약 59% 정도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1~2가지>의 반찬 수는 급식시설 이용 전에는 약 29%로 조사되었으나, 급식시설 이용 후에는 나타나지 않아, 반찬의 가지 수는 급식시설 이용전후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공동급식시설의 형성이 농촌 고령자들의 영양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식사비용의 변화는 이용 전 월 평균 14.8만원에서 이용 후 월 평균 11.6만원으로 3.2만원이 감소하였다.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식사비용은 무료이고 식사재료 등이 마을 내에서 공급되거나, 공동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식사비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환 외의 연구¹⁴⁾에서 급식시설 이용 전후의 결과를 보면, 반찬 가지 수는 5.2가지에서 6.6가지로 증가하였으며, 식사비용에 있어서는 이용 전에는 월평균 14.1만원에서 이용 후에는 9.7만원으로 4.4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조사대상 지역의 차이인지 공동급식시설의 운영적 측면에서의 차이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지만, 시설 이용 후 반찬 가지 수의 증가와 식사비용의 감소는 공통된 결과로서 공동급식시설이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인되었다.

Table 13. Comparing before and after community meal

구분		결과	변화
식사	이용 전 식사횟수(평균)	2.7회/일	0회/일 변화없음
	이용 후 식사횟수(평균)	2.7회/일	
반찬	이용 전 반찬 가지 수(평균)	3.4가지/회	2.0가지/회 증가
	이용 후 반찬 가지 수(평균)	5.4가지/회	
비용	이용 전 식사비용(평균)	14.8만원/월	3.2만원/월 감소
	이용 후 식사비용(평균)	11.6만원/월	

13) 김진환·박중신·송서호,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주민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7(4). 2015. pp.9-16.

14) 김진환·박중신·송서호,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주민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7(4). 2015. pp.9-16.

4.2 이용만족도

① 입지 및 공간구성에 대한 만족도

공동급식시설의 입지 및 공간구성의 8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5점척도로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은 4.15로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공동급식시설까지의 거리와 위치가 4.2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마을회관 등과 같이 마을에 존재하는 기존 공동시설을 재활용하여 사용하면서 이미 위치에 대한 인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라 보아진다.

공동급식시설 내부공간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수납공간 및 창고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급식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들은 음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므로 이를 저장하는 공간도 보다 위생적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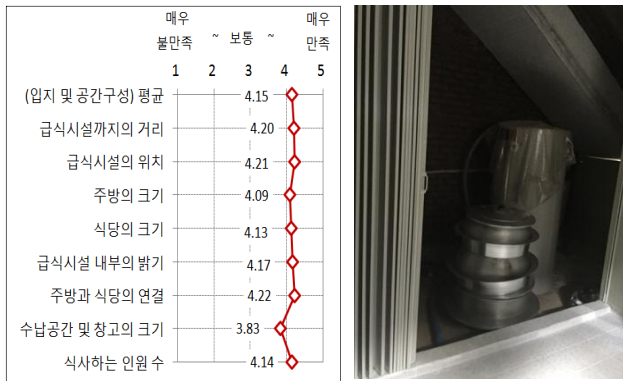


Fig. 16. Evaluation on site and space planning

Fig. 17. Shortage example of poor environment

② 정서 및 친밀감에 대한 만족도

공동급식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정서적 측면의 8개 항목에 대하여 5점척도로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은 4.15로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 내의 공동급식시설이 마을주민들의 친밀도와 공동체 생활을 향상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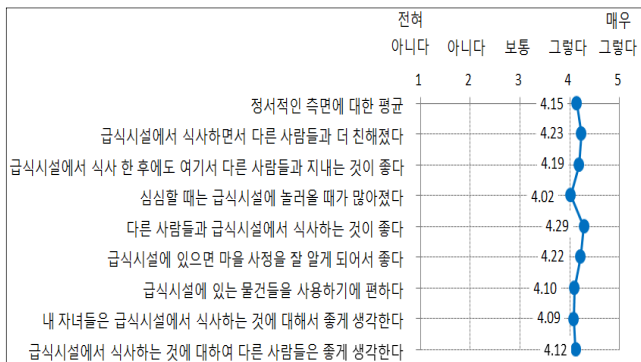


Fig. 18. Evaluation of emotion and intimacy

③ 안전에 대한 만족도

안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급식시설의 안전과 편리, 계단(경사로), 화장실, 출입구, 화재에 대비하는 시설이나 장

치의 안전성에 대한 6개 항목을 평가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98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의 평가항목 중 4점 이하는 <계단(경사로)의 사용 편리성>과 <화재에 대비하는 시설이나 장치의 안전성>의 2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먼저 계단(경사로)에 대해서 살펴보면, 3.50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는데, 고령자의 신체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이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시설도 존재하고,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설치된 시설도 있다. 이는 공동급식시설은 내부공간의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외부계단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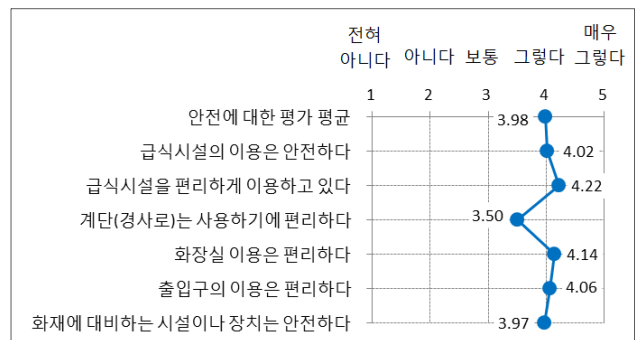


Fig. 19. Safety evaluation

급식시설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알리는 방법에 대한 서술형 질문에 대해서, 98명(84.5%)이 이에 대하여 기술을 하였으며, 서술내용을 비상시 연락방법, 연락대상, 연락망의 활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락방법으로는 전화(이동통신 포함)와 방송(마을 방송시설), 연락대상으로는 119와 마을리더(마을이장, 부녀회장), 가족, 이웃 및 동료(같이 식사하던 친구 등)이 있으며, 비상연락망을 비치하여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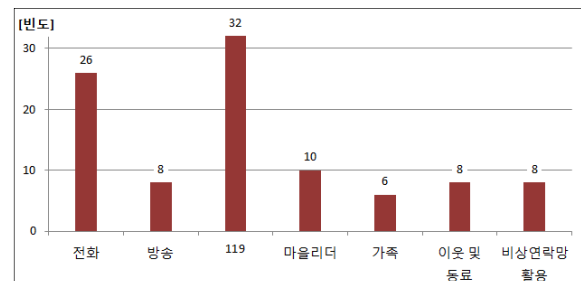


Fig. 20. Classification of corresponding ways about emergency

④ 영양에 대한 만족도

영양에 대해서는 3개의 항목을 평가하였으며, 평균은 4.00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은 <공동급식시설이 생긴 후 하루 세끼

를 꼭 챙겨 먹는다>로서 이는 이미 습관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마을의 급식시설로 인하여 쉽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특히 대부분의 마을에서 공동식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의 설비와 위생과 같은 환경적인 변화가 식사횟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 보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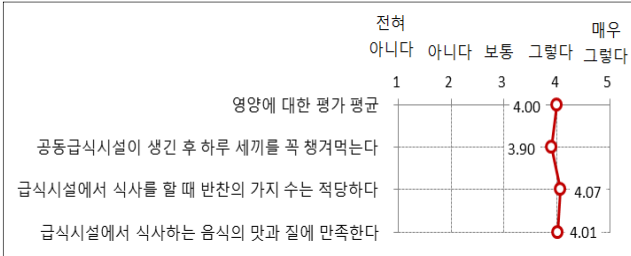


Fig. 21. Evaluation of nutrition

그러나 급식시설에서의 <반찬의 가지 수>와 <음식의 맛과 질>에 대한 항목에서는 만족도가 조금 더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앞서 급식시설의 이용 진후에 대한 비교에서 설명한 것과 식사횟수에는 변화는 없지만 반찬 가지 수가 2가지 증가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 보아진다.

⑤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

공동급식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12개 항목을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균은 4.03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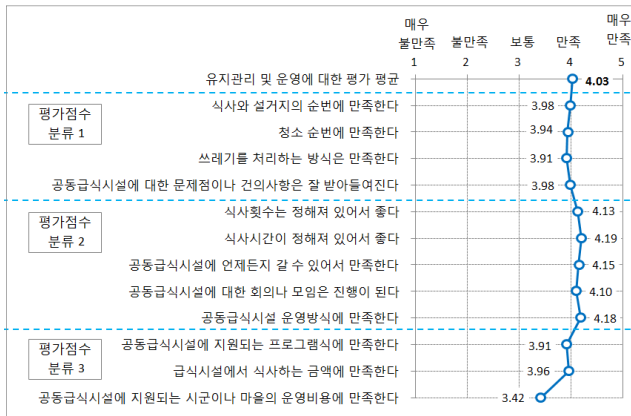


Fig. 22. Evaluation of maintenance

12개 평가항목을 내용과 평가점수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분류 1]은 이용자들의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항목들이며, [분류 2]는 급식시설의 규칙과 관련된 항목, [분류 3]은 운영비용과 지

자체 프로그램 등 마을 외부기관과 관련된 항목이다.

먼저 [분류 1]의 평가항목인 <식사와 설거지의 순서>, <정소순번>, <쓰레기 처리 방식>, <공동급식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의 반영정도>는 전체 평균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이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들은 급식시설 이용자들의 생활이나 행동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의견이나 진행에 대한 회의나 모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식사 횟수>, <식사 시간>, <급식시설의 이용일>은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공동급식시설에 대한 회의나 모임의 진행정도>도 4점 이상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급식시설의 운영에 대한 규칙과 같은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방식에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 3]의 항목은 <식사 금액>, <지원 프로그램>, <시군이나 마을의 운영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운영비용과 지자체 프로그램 등 마을의 외부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된다.

⑥ 총괄평가

공동급식시설을 5가지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근소한 차이이지만, <입지 및 공간구성>과 <정서적 측면>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적 측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전체 평균은 4.06으로 나타났다<Table 14>.

공동급식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인 만족도를 1문항의 5점 척도로 평가했을 때, 4.24로, 100점을 기준으로 할 때는 90.03으로 평가되어, 공동급식시설의 이용자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사업 가이드라인의 별도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자재를 위한 창고에 있어서 환기 및 통풍 등과 같은 내용에 있어서, 내부공간 구성에 있어서 수납공간 및 창고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 및 요인

100점을 기준으로 한 공동급식시설의 만족도 평가점수와 각 평가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상관계수가 ±0.3 이상인 항목을 <Table 15>에 제시하였다.

공동급식시설의 전체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항목은 <영양적 측면>에서 2개 항목, <안전적 측면>에서 1개 항목, <유지관리 및 운영>에서 5개의 항목으로 나타났으나, 아주 높은 상관관계는 나타나지는 않았다.

<입지 및 공간구성>과 <정서 및 친밀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만족도와 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4. Evaluation of common meal facilities

평가 영역	세부항목						전반적 만족도	100점 기준
	입지 및 공간구성	정서 및 친밀감	안전	영양	유지관리 및 운영	전체평균		
문항 수	8	8	6	3	12	27	1	1
평균 점수	4.15	4.15	3.98	4.00	4.03	4.06	4.24	90.03

Table 15. Cor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in use

내용	평가항목	상관계수
영양	음식의 맛과 질에 만족한다	0.411
	급식시설 이용 전의 반찬 가지 수	-0.300
안전	출입구의 이용은 편리하다	0.315
유지 관리 및 운영	식사와 설거지 순번에 만족한다	0.550
	청소 순번에 만족한다	0.484
	쓰레기 처리 방식에 만족한다	0.335
	시설에서 식사하는 금액에 만족한다	0.461
	공동급식시설의 운영방식에 만족한다	0.386

<영양>에 있어서는 공동급식시설 이용 전의 반찬 가지 수에서는 음(-)의 관계가 나타나, 시설 이용 전의 반찬 가지 수가 적을수록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음식의 질과 맛에 만족할수록 전체적인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어, 공동급식시설에 있어서 음식의 맛과 질, 그리고 반찬의 가지 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전>에 있어서는 출입구 이용의 편리성이 전체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공간에 있어서 배리어프리 등의 안전적인 측면에서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지관리 및 운영>은 가장 많은 항목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특히 <식사와 설거지 순번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영역에서 상관관계를 보이는 항목들은 앞서 설명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에서 [평가점수 분류 1]의 항목들이다. 즉 이용자들의 생활과 행동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항목들이 전체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4년~15년 2년간 추진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54개의 공동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현황과 무장애디자인의 적용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에 대하여 135부의 설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촌지역 마을에서는 본 시범사업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공동식사가 이루어졌지만 주방시설의 경우, 개수대, 배수, 설비, 싱크대의 비효율적 공간 등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있었다. 따라서 본 시범사업은 일차적으로 급식시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평가치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식사방식, 상차림 방식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열악한 환경에서 행해지던 식사공간이 정부의 지원으로 위생적이면서도 마을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공동급식시설 이용 후에 반찬 가지 수의 증가, 음식의 맛과 질에 대한 만족도 결과에서 볼 때, 급식시설이 주민들의 영양적인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물론 영양에는 식단구성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만, 농촌에서 식단의 구성까지 면밀하게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찬 가지 수의 증가는 간접적으로 영양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시범사업에 있어서 공동급식시설에 대한 건축적 측면은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둘 수 있는데, 하나는 시설이용자인 고령자를 위한 건축적 배려이며, 다른 하나는 급식시설이라는 시설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다. 고령자를 위한 계획으로서 시범사업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무장애디자인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매우 초보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급식시설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식자재의 저장고나 창고 등이 위생적 관점에서의 공간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만족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본 시범사업을 위해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이러한 결과가 농촌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하는지,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인지, 기본적인 설계기준의 미흡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고령자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기준이 농촌지역에 적용할 때 변화되어야 할 사항이 존재하는지 혹은 어떤 요소들이 더 추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밝혀야 할 과제라 사료된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은 주민들의 실정을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마을 단위에서의 현실적인 복지가 직접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사례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고령자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농림축산식품부,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 2013.
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유형별 가이드라인, 2015.
3.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건축계획기준 개발, 2014.
4. 김진환·박중산·송서호,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주민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7(4), 2015. pp.9-16
5. 박순미,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특성비교, 노인복지연구, 47, 2010. pp.137-160
6. 정재훈, 농촌노인의 주거환경과 생활만족도 변화추이,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7(4), 2015. pp.1-8

접수일자 : 2016.10.10
 심사완료일자 : 2016.11.20
 게재확정일자 : 2016.11.23